

2015 / 12 / 03 (THU)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소폭 하락.

美 제조업 지표 악화와 원화 약세가 악재로 작용.

전반적인 약세장 가운데 게임주가 1.3% 하락하며 가장 부진.

수급측면에서는 동반매수세가 나타난 안랩, 코나아이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선데이토즈 약세.

종목별로는 최근 맞고게임 출시에도 불구하고 규제 우려가 부각되며 선데이토즈가 2.3% 하락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18.77	-1.3%	-11.7%	-1,582 억	95 억
(코) 인터넷	19,568.58	0.1%	2.6%	35 억	85 억
(코) IT S/W&SVC	2,070.92	-0.3%	3.6%	32 억	97 억
(코) 소프트웨어	301.77	-0.5%	23.0%	-22 억	8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4.11	-0.6%	4.9%
MSCI Internet	198.34	-0.4%	29.9%
MSCI IT Services	124.87	-0.8%	6.0%
MSCI Software	183.28	-0.4%	12.0%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9,000	-1.2%	-10.3%	-147 억	130 억
카카오	119,800	0.3%	-3.1%	37 억	86 억
한국사이버결제	25,300	-0.8%	-5.2%	-2 억	-2 억
KG이니시스	15,550	-1.0%	-13.1%	-1 억	1 억
KG모빌리언스	13,550	-0.7%	-6.9%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0,550	-2.8%	83.5%	-1 억	0 억
KTH	8,750	-1.0%	14.4%	-1 억	0 억
아프리카TV	25,300	-1.7%	-5.4%	3 억	1 억
SK컴즈	6,200	-2.4%	-6.8%	0 억	0 억
KT뮤직	4,900	7.7%	-9.1%	0 억	0 억
다날	9,600	-1.3%	18.5%	-1 억	-
에스24	9,610	1.2%	37.9%	3 억	0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77.85	-0.8%	46.6%
Facebook	106.07	-1.0%	36.0%
Tencent	153.70	-0.4%	36.6%
Baidu	211.36	-1.3%	-7.3%
Yahoo	35.65	5.8%	-29.4%
LinkedIn	245.51	-1.7%	6.9%
Twitter	25.40	-0.5%	-29.2%
Weibo	18.69	0.3%	31.3%
SINA	51.49	-0.6%	37.6%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5,000	-0.2%	-9.7%	20 억	-15 억
SK	268,000	-0.7%	25.5%	11 억	-11 억
다우기술	22,650	-3.0%	89.5%	-9 억	5 억
포스코 ICT	4,805	-0.9%	-9.3%	0 억	0 억
신세계 I&C	105,500	1.4%	-5.8%	-1 억	0 억
동부	4,970	-0.4%	98.0%	0 억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9.70	-1.1%	-12.9%
TCS	2,365.20	0.1%	-7.5%
Accenture	107.59	-0.5%	20.5%
HP	11.95	-6.2%	-70.2%
Infosys	1,060.70	-1.7%	7.5%
Wipro	577.75	-0.7%	4.1%
NTT Data	6,100	0.7%	35.1%
Fujitsu	634.40	-0.3%	-1.5%
CSC	30.87	-1.5%	-51.0%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컴투스	41 억	NAVER	-147 억
카카오	37 억	엔씨소프트	-55 억
삼성에스디에	20 억	게임빌	-9 억
SK	11 억	다우기술	-9 억
한국전자인증	6 억	더존비즈온	-8 억
안랩	5 억	파수닷컴	-7 억
투비스소프트	3 억	한글과컴퓨터	-7 억
에스24	3 억	NHN엔터	-4 억
아프리카TV	3 억	위메이드	-4 억
조이맥스	2 억	유비벨록스	-4 억
코나아이	2 억	인피니트헬스	-3 억
선데이토즈	2 억	라운시큐어	-2 억
액토즈소프트	2 억	처음앤씨	-2 억
디오텍	1 억	이니텍	-2 억
에스넷	1 억	민앤지	-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15,500	-2.3%	18.4%	-55 억	6 억
컴투스	116,700	0.6%	-3.2%	41 억	-9 억
NHN엔터테인먼트	59,500	-0.7%	-29.7%	-4 억	9 억
웹젠	23,600	-2.7%	-18.8%	0 억	6 억
위메이드	35,250	-1.1%	-6.7%	-4 억	-1 억
선데이토즈	12,500	-2.3%	-27.3%	2 억	-4 억
액토즈소프트	30,550	-0.8%	-8.8%	2 억	-1 억
게임빌	78,600	-0.9%	-34.9%	-9 억	11 억
네오위즈게임즈	16,350	3.5%	-28.1%	1 억	0 억
넥슨지티	11,750	-0.4%	-7.8%	-1 억	0 억
데브시스템즈	27,400	1.3%	-42.6%	0 억	0 억
조이시티	29,200	-2.0%	44.6%	-1 억	-2 억
파티게임즈	13,450	-1.8%	-48.4%	-1 억	2 억
조이맥스	13,750	-2.1%	-49.6%	2 억	0 억
한빛소프트	7,170	-0.3%	23.8%	0 억	-
와이드온라인	6,540	0.8%	41.6%	0 억	-

Games	close	1D	YTD
Nintendo	19,330	0.5%	53.4%
EA	69.34	1.0%	47.5%
Blizzard	38.38	-0.5%	90.5%
NEXON	1,974	0.1%	75.5%
NAMCO	2,742	0.4%	6.9%
King	17.74	0.1%	15.5%
Konami	2,899	-0.7%	30.6%
Square Enix	2,921	4.1%	16.5%
GungHo	383	0.0%	-13.2%
DeNA	1,983	0.8%	37.1%
Sega	1,320	-1.0%	-15.2%
Take-Two	35.88	-0.3%	28.0%
Zynga	2.63	1.2%	-1.1%
Ubisoft	27.91	0.2%	84.0%
Gree	612	-0.2%	-15.5%
Changyou	21.44	-0.6%	-21.6%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130 억	한국정보인증	-17 억
카카오	86 억	삼성에스디에	-15 억
게임빌	11 억	SK	-11 억
NHN엔터	9 억	컴투스	-9 억
더존비즈온	8 억	선데이토즈	-4 억
코나아이	8 억	브리지텍	-2 억
한글과컴퓨터	8 억	조이시티	-2 억
민앤지	7 억	한국사이버결	-2 억
웹젠	6 억	MDS테크	-1 억
엔씨소프트	6 억	액토즈소프트	-1 억
다우기술	5 억	대아티아이	-1 억
안랩	3 억	아이티센	-1 억
아이크래프트	2 억	위메이드	-1 억
파티게임즈	2 억	포스코 ICT	0 억
크레듀	1 억	케이사인	0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6,700	2.1%	8.9%	2 억	8 억
더존비즈온	21,650	-0.2%	132.8%	-8 억	8 억
한글과컴퓨터	22,300	-2.2%	10.4%	-7 억	8 억
골프존	92,100	-1.0%	264.8%	-1 억	0 억
안랩	46,500	3.2%	29.2%	5 억	3 억
한국정보인증	12,950	-6.8%	272.7%	-1 억	-17 억
슈프리마	17,850	-0.8%	-29.9%	0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5,340	-3.4%	97.0%	0 억	-
지트리비앤티	14,650	7.3%	324.6%	-2 억	-
MDS테크	22,600	0.4%	9.2%	1 억	-1 억
오상자이엘	10,150	1.0%	-23.7%	-1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050	-2.4%	38.8%	-3 억	-
케이사인	3,095	3.2%	25.8%	0 억	0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5.21	0.0%	18.9%
Oracle	38.70	-1.4%	-13.9%
SAP	79.13	-0.7%	13.6%
EMC	25.82	1.1%	-13.2%
Salesforce	80.88	-0.2%	36.4%
Adobe	92.02	-0.6%	26.6%
Vmware	60.66	-2.5%	-26.5%
Intuit	99.50	-2.2%	7.9%
Symantec	19.66	-0.4%	-23.4%
CA	28.04	-0.5%	-7.9%
Citrix	77.19	-0.8%	21.0%
Autodesk	64.55	-0.3%	7.5%
Synopsys	50.03	-0.9%	15.1%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인터넷은행 인가 받은 카카오, KT 주가 '울상' 왜?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와 KT의 주가가 예비인가 발표와 함께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업체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두 곳 모두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를 인터넷은행 핵심 사업으로 내걸었지만, 카카오는 여신금융사업 '초짜'이며 K뱅크는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이미 고금리 대출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은 기존에 여신금융을 해오던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IT기업인 카카오의 대출사업 진출은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KT 또한 비씨카드가 확보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시장을 '제 살 깎아먹기'를 하면서까지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컨소시엄 최대주주와 실질적인 운영주체의 상반된 기업문화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는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가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벤처기업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기업문화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은 보수적인 금융사로 끝히는 곳으로 인터넷은행 설립과정에서 두 회사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컨소시엄 참여은행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협업 또한 미지수다. 인터넷은행은 제2금융사가 아닌 시중은행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경쟁사나 다른 은행에 기존 시중은행이 협업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한계가 있다.

실제 참여 은행들은 "지분율 참여가 미미해 인터넷은행이 잘된다고 해도 크게 득이 될 것은 없다"며 "향후 인터넷은행에 좋은 모델이 있다면 우리 쪽에서도 벤처마킹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참여업체라는 의미만 있을 뿐 실제 사업구상 단계에서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두 곳 모두 완벽한 장밋빛 모델을 구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돌입하게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카카오	0.3%	최근이슈

카카오뱅크 이달 1천억 규모 SPC 설립, 본인가 준비 박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인가 준비에 들어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이달 중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한다. SPC는 본인가 신청을 위한 물적·인적 요건을 준비한다.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으면 별도로 설립되는 은행법인이 SPC를 흡수하게 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은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적 요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본다. 발기인과 임원은 은행법상 임원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물적 요건은 은행업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예비인가 사업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인적·물적 설비 요건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전산망과 보안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도 전산망과 보안 등 IT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 전무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전산망을 최적화하는 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는 들 것"이라며 "전산망을 구축해야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뒤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 중에는 본인가를 신청하고 상반기 중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SPC를 통해 은행업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물적·인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며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3곳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준비했으니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에 욕심은 난다"고 했다.

SPC 지분율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지분율과 같다.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웹젠	-2.7%	실적발표

웹젠, 2015년 3분기 실적 발표

웹젠의 2015년 3분기 실적은 매출 782억원(게임 매출 781억원)으로 전년동기(2014년 3분기) 대비 225%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9억원으로 165%, 당기순이익은 264억원으로 142% 증가했다. 전 분기(2015년 2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9.7%,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3.1%, 21.8% 상승하면서 올해 매 분기마다 창사 후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701억원에 영업이익 604억원, 당기순이익 556억원을 기록했다.

웹젠의 핵심 매출원으로 국내외에서 브랜드저력을 과시한 '뮤(MU)'와 관련된 게임매출은 69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9%를 차지했다. 이중 지난 4월 한국에 출시된 '뮤 오리진'은 출시 후 반년이 넘은 현재도 국내 주요 모바일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윈스토어) 3사의 매출순위 상위권을 점유, 장기 흥행게임으로 자리잡으면서 당분간 견고하게 흥행과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뮤 오리진'의 흥행성공은 '뮤(MU)'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PC온라인게임 '뮤 온라인'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도 됐다. 지난 10월 대형 업데이트를 앞두고 진행된 '뮤 온라인' 사전예약 회원 모집에는 10만명이 넘는 게임회원들이 참여하면서 '뮤 온라인' 제2의 전성기를 알렸다.

웹젠은 '뮤 오리진' 이외에 추가로 자사가 보유한 게임 IP를 사용하는 게임들의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게임들의 개발 및 서비스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외 시장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웹젠은 '샷온라인'등의 스포츠게임 IP를 보유한 '온네트'를 인수하는 한편, 다수의 개발사와 PC 온라인/모바일 게임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등 매출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대응도 이미 시작했다.

'샷 온라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세계 300만명 이상의 게임회원들에게 다국어로 서비스돼 온 골프게임으로 지난해(2014년) 연간 131억원의 매출을 올린 온네트 매출의 66%이상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다. '샷 온라인'은 RPG 위주로 게임사업을 영위해 온 웹젠이 스포츠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웹젠은 온네트 인수로 국내외에서 서비스되는 온네트의 모든 게임IP와 스포츠게임 운영경험을 비롯해 현재 개발중인 모바일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권한 일체를 확보했다.

웹젠은 2016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모바일게임 'Project S'를 비롯한 여러 게임들의 게임 퍼블리싱도 준비하고 있다. 2~3개의 모바일게임이 상반기 출시 라인업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게임퍼블리싱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파트너사는 계속 늘고 있다.

해외사업 부분에서는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글로벌 서비스TFT(TaskForce Team)를 구성해 글로벌 퍼블리싱을 준비하는 등 해외게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글로벌 포털 'WEBZEN.com(웹젠닷컴)'은 지난 10월, PC온라인게임 '엘로아(Eloa)'와 '아스타(ASTA)'의 비공개테스트(CBT, Closed Beta Test)를 마무리하고, '엘로아'는 연내(2015년), '아스타'는 내년(2016년) 상반기에 출시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엘로아'는 테스트 종료 후, 북미/유럽 게임매체 및 게이머들로부터 높은 평점과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등 흥행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게임개발 전문 자회사인 '웹젠엔플레이'가 개발 중인 모바일게임과 PC온라인게임들은 2016년 중 첫 테스트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웹젠의 김태영 대표이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우수인재 영입과 신작 확보, 해외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유수의 게임사들과의 경쟁에서 앞선 기업으로 계속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카카오야 맞고게임 총출동, 규제 벽 넘을까

선데이토즈, 엔진, 조이맥스 등 게임개발 3개 업체는 지난 1일 일제히 '카카오 게임하기'를 플랫폼으로 한 맞고게임을 출시했지만 규제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라는 대형 소셜 플랫폼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얽히고설킨 보드게임 규제 탓에 제대로 된 소셜 기능을 활용할 수 없어서다.

'상대방 선택 금지'(유료게임머니 이용시) 조항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쉽게 말해 카카오 친구들을 지정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웹보드 게임이 한창 유행할 당시 이런 방식으로 '판돈 몰아주기' 등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일 출시된 3개 맞고게임은 판돈 규모로 방이 나뉘어 있고 방 참여도 랜덤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 제목에 특정한 표시를 해서 카카오톡 지인을 초청하려 해도 그러한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다.

게임개발사 관계자는 "한때 보드게임 안에서 벌어진 유저들의 잘못된 행태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게임구조가 짜여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최근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근 판당 배팅금액이 2천500원(게임머니 현금환산 기준) 이하일 때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파티게임즈, 김현수 다다소프트 대표 신임대표 추대

파티게임즈는 대표이사에 김현수 현 다다소프트 대표(45)를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파티게임즈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환경에 대응해 자체 콘텐츠 파워를 길러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이대형 현 대표는 전문성을 활용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담당해 자체개발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게임으로 명성을 떨쳤던 아이러브커피를 비롯한 아이러브시리즈를 지속 개발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성공을 재현하는데 힘을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직에 내정된 김현수 다다소프트 대표는 과거 커뮤니티 포털 프리챌 게임사업팀장을 시작으로 NHN 한게임 게임사업총괄, NHN 중국지사 대표이사, CJ E&M 넷마블 포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다각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김 대표 내정자는 한게임 재직 당시 웹보드게임 사업 매출 규모를 약 6배 이상 확대시켜 한게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2011년부터는 개발사 다다소프트를 설립해 대표이사직을 맡아 경영 노하우와 해외 서비스 경험을 쌓아온 융합형 CEO다.

김현수 대표 내정자는 "평소 애정을 갖고 지켜봐 온 파티게임즈와 손잡게 된 후 대표이사직까지 맡게 되어 기쁘다"며 "실력과 가능성을 겸비한 파티게임즈를 이끌어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형 대표는 "과거 플랫폼 선택과 유통 등 콘텐츠 외적인 부분이 더 중요했다면 현재는 게임 자체의 콘텐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며 "김 대표 내정자는 이에 필요한 실무적 실력을 비롯해 치열한 게임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이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표 내정자는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계획이다. 공식일정에 앞서 파티게임즈 내부 임직원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사업방안을 구상하는 등 사전 업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3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2월 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2월 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